

# 창립 53돌 ... 회원 8백여명 대한예방의학회

1947년 조선보건학회로 출범한 대한예방의학회는  
해마다 「예방의학지」를 4회 발간하고 4차례의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또한 「예방의학회 50년 도록」을 비롯 「한국보건의료문제 - 진단과 처방」 등  
의료참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앞으로 대한예방의학회는  
예방의학 뿐만아니라 의약분업 및 통일대비 의료제도 등  
미래지향적인 과제에 대한 연구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金 峻 淵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동아대 의대 교수〉

대한예방의학회는 1947년 조선보건학회의 창립을 효시로, 1953년 대한위생학회를 거쳐 1958년도에 대한예방의학회로 개칭되어 발전하여 왔다. 그러므로 본 학회는 금년으로 만 53년의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나라 예방의학의 원조가 심상환교수(1972년 작고)라는데 부인할 사람은 결코 없다. 선생님께서는 조선보건학회와 조선위생학회의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예방의학회가 창립된 후 8년간 회장직을 역임하였다. 심선생님의 뒤를 이어 주인호(서울보건병원 재직), 양재모(연세대 명예교수), 권이혁(서울대 명예교수), 조규상(대한산업보건협회

명예회장) 교수를 비롯하여 40명의 교수들이 학회장 혹은 이사장으로 재임하면서 학회를 발전시켜 왔다.

## ‘이성관학술상’ 제정

전국적으로 의과대학의 신설이 증가하여 교수수는 물론 학회 회원수가 늘고 학회 회무도 복잡하고 방대해짐에 따라 2년 임기의 이사장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한 것은 1993년부터이다. 본 학회는 현재 약 8백명의 정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름지기 국민의 건강유지 증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즉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상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어 있지 못하였던 생활환경 하에서 각종 전염병에 시달리고, 의료혜택도 극히 일부 국민에게만 국한되었던 시대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국민은 기본적 위생시설을 갖춘 생활환경 속에서 의료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며 질병예방과 아울러 보다 건강하게 삶의 가치를 찾아가며 생활하고 있다. 이 모든 발전과정에서 예방의학회는 정부에 앞서 시책을 유도하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이바지하였다고 자

부한다. 아울러 1979년에 창립된 한국역학회, 1988년의 한국보건행정학회와 대한산업의학회를 비롯한 한국항공우주학회, 한국농촌학회 및 한국모자보건학회 등의 예방의학 관련 분야별 학회들의 회장과 회무의 중심 역시 예방의학회 회원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방의학전문의 제도가 1963년에 처음으로 시행된 이래 지금까지 6백30명의 전문의가 배출되어 의과학 교육연구기관과 보건의료공공기관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45명의 예방의학 전공의가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 중에 있으며 그들이야말로 예방의학의 꽃이요, 미래의 등불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회에서는 1997년도부터, 고 이성관교수(전 경북의대 교수, 1975년도 학회회장)께서 제정한 ‘이성관 학술상’을 매년 예방의학회지에 게재된 전공의들의 논문을 심사하여 우수연구자 3명에게 추계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석상에서 공로패와 부상 1백만원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연구의욕과 학회활동을 고취시키고 있다. 예방의학회지는 1968년 발간을 시작으로 85년까지는 연 1회, 86~88년에는 연 2회로, 그리고 89년부터는 연 4회로 늘려 발간하고 있다.

## ‘예방의학...’ 교과서 편찬

1985년에 전국적으로 46명의 예방의학교수들이 분담 집필하여 편찬한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 교과서는 1995년에 9백여쪽 분량의 개정판을 출간하여 현재 전국의 예방의학교실에서 교재로 이용되고 있다. 의과대학 예방의학 학습목표는 1977년도에 제정하였고 그

후 시대변천에 따라 네차례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의과대학의 지역사회의학 교육과 보건의료법규 과목의 학습목표 역시 본 학회에서 제정, 운용하고 있어 예방의학회가 의과대학 교육의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 학회에서는 「한국예방의학교실사」를 총 8백14쪽 분량으로 1995년도에 발간하였다. 역사는 갈고디듬을 때 그 빛을 더욱 밝히는 법이며 나아가서 그것을 보존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지배할 힘을 주어왔기에 이는 본 학회의 새로운 도약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자부하는 바이다. 1997년 10월에는 강원도 용평 일원에서 1천여명의 회원과 관계인들이 모여 한국역학회, 한국보건행정학회 및 대한산업의학회와 공동으로 학회창립 50주년기념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이 학술대회에서는 50년간의 제반 학회활동을 종합, 정리하여 우리나라 예방의학의 발자취를 음미해 보고 그러한 역사적인 각종 자료들을 모아 그 이듬해에 1백60여쪽에 달하는 「예방의학회 50주년기념 도록」을 발간한 것은 본 학회의 자랑스런 업적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1999년 10월 본 학회에서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한국보건의료문제-진단과 처방」참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의 보건의료문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예방의학도는 물론이고 의학과 보건학을 공부하는 학생, 그리고 의료정책을 다루는 보건행정가 등 의료종사들에게 유익하게 읽혀지고 있다.

### ‘건강통계자료...’ 발간 예정

우리 학회는 매우 분주하고 일거리가



많은 학회중의 하나이다. 이를테면 1월에 전문의 고시, 2월중에 이사회와 동계 학술심포지엄, 3, 6, 9, 12월에는 학회지 발간, 4월에 춘계 학술대회, 4, 7, 11월에 학회소식지 발간, 7월에는 예방의학전공의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공의 연수교육과 하계 워크숍, 10월에는 추계 학술대회와 정기총회 등의 공식 활동이 전개된다. 이러한 정기행사 외에도 수시로 학술모임과 각종 위원회 활동이 추가되며, 특히 금년에는 「건강통계자료 수집 및 측정의 표준화」참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므로 학회 회무가 더욱 가중되었다.

### 한해 2백여편 논문 발표

대한예방의학회가 1년에 공식적인 학술행사(학술대회, 워크숍 및 학술심포지엄)를 무려 네차례나 개최한다는 것은 영광스런 일이며, 이들 중 추계학술대회를 가장 성대하게 치른다. 추계 학술대회는 대개 지방에서 개최되고 약 5백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2백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그것들의 주제는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환경오염의 실태와 개선방안, 보건의료 정책의 기획과 실천, 의료환경 개선 등 직·간접적으로

소위 국민의 건강증대와 지역사회 복지향상에 관련된 것들이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방의학은 우리들의 주변에서 보건의료환경에 관한 한 어디에서나 필수적이며 항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정부의 보건정책 담당자는 물론 전국의 보건소장들이 우리 학회의 회원이고 군 의무행정 관리자와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자 역시 예방의학 전문가들이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발전에 관한 연구논문을 비롯하여 급·만성질환 관리와 생활환경 개선, 의학교육, 보건 의료법규에 관한 연구결과들도 끊임없이 발표해 오고 있다. 지금 당장 전국의 어느 구석에서 집단적으로 괴질이 발생한다면 예외없이 예방의학 전문가가 달려가야 하며,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 학회가 앞장서서 일익을 맡아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본 학회에서는 예방의학의 범주를 재고하고 나아가서 예방의학 전문의의 역할과 기능의 정립, 관련 학회와의 관계 설정, 의약분업 및 통일 대비 의료제도 연구 등 미래지향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나은 복지국가 건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㉟